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로 물든다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앙체육공원

익산시는 오는 25일부터 11월 3일 까지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될 제 16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통해 가을철 익산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사랑여행 일번지’로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사랑고백관련 이벤트를 마련하여 방문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한다.

국화축제장에서 형형색색 국화 물결을 보는 것만으로도 환호하는 경험이지만 직접 체험해보며 사진을 남기는 것도 추억을 깊게 새길 수 있는 방법이다.

국화축제 특별전시장 내에 마련된 ‘로맨틱 캔들 하우스’와 ‘판타스틱 미러 하우스’는 돌하우스형 포토존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화축제에서 약속한 사랑을 1년 후에 확인할 수 있는 ‘2020 타임캡슐 리브레터’는 ‘약속의 계단’에 설치된 캡슐함에 작성한 편지를 보관했다가 1년 후에 받아볼 수 있는 이

축제장 내에서 돌만의 기념사진을 남기고 싶은 이들에게 안심맞춤인 공간이다. 포토존은 상시 운영되며, 사진 신청한 10커플에 한해 본인이 원하는 프리포즈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체험 비용은 무료이며 플래너이드 사진과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또한 결혼식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아름다운 웨딩스테이지도 마련된다. 포토존은 상시 운영되며, 사진 신청한 10커플에 한하여 웨딩마치 재현 이벤트를 진행한다. 부케, 화관 등 소품들도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만한 콘셉트 사진을 남길 수 있다.

국화축제에서 약속한 사랑을 1년 후에 확인할 수 있는 ‘2020 타임캡슐 리브레터’는 ‘약속의 계단’에 설치된 캡슐함에 작성한 편지를 보관했다가 1년 후에 받아볼 수 있는 이

벤트로 하루 202명씩 2020명에 한해 무료 염서를 제공한다.

특히 축제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이벤트는 축제방문 인증샷을 개인 SNS에 올린 방문객에 한해 참가자 격이 부여된다.

이 외에도 ‘시크릿 러브 포토존’, ‘자이언트 꽃다발 고백 포토존’ 등 사랑하는 이들과 특별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다양한 세트가 꾸며질 예정이다.

유료 구간인 특별전시장 내 동화 신데렐라를 메인테마로 해 유리 구두, 호박마차, 신데렐라와 왕자님 등 국화 조형물과 토끼어리로 꾸며진 ‘어린이 동화나라’가 마련됐다. 이와 관련 특별전시장 내 웨딩스테이지에서는 행운의 상품을 증정하는 ‘신데렐라 주인공 찾기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지, 구두, 목걸이, 화관의 주인공을 찾아 선물을 증정하는 ‘신데렐라 주인공 찾기 이벤트’는 축제방문 인증샷을 개인 SNS에 올린 방문객에 한해 참가자 격이 부여된다.

2인 1조가 한 팀이 되어 선착순 50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주최 측이 제시한 사이즈에 가장 근접한 최종 팀에 축제장 내 보석판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탈락한 팀에도 룰렛게임을 통한 기념품을 증정한다.

이벤트 사진신청은 오는 23일까지 국화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사진 신청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며 사진 신청자들은 영상과 음향 등 본인이 원하는 프리포즈를 준비할 수 있다.

정원이 미달될 경우 축제 기간 내 즉석 신청할 수 있어 특별한 사랑 고백 이벤트를 꿈꾸는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국화축제 관련 정보는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홈페이지(<http://www.iksan.go.kr/gukhw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경찰서는 21일 제 74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다.

익산경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

익산경찰서(서장 박현수)는 21일 제 74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오전 박현수 서장과 각 과장이 익산경찰서 전 경찰관을 대표하여 팔봉동 경찰묘역을 참배한 것을 시작으로, 식전 축하공연에서는 신동지구대 소속 정재성 신임순경의 미술공연과 가수 리아의 축하 공연에 이어 지휘부가 마련한 경품 추첨 행사를 갖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눈길을 끌었다.

본 행사에서는 제 74주년 경찰의 날 기념 홍보 영상 시청에 이어 자율방범대연합회 정책위원장 김성갑, 경찰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최민성 등 시민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하고, 여성청소년과 채규병 경위의 근정포장 및 경무과 최기찬 경감 등 행정발전 유공 경찰관에 대한 수여 등 축하와 감사가 이어졌다.

박현수 서장은, 인사말에서 “항상 우리 경찰에 힘이 되어 주시는 협력단체에 대해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경찰관 및 경찰가족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상생형 군산형 일자리 시민설명회

적정임금 기준 마련 등 원·하청 갈등 문제 협의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노사민정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안에 합의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21일 군산대 이노테크홀에서 열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시민보고회에는 지역 내 경제사회단체를 비롯해 관계기관 및 시민 등 2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보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 추진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2부는 상생협약안을 이끌어낸 노·사·민·정을 각각 대표하는 4인이 상생형 일자리 협약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감을 공유하고 전북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군산시는 지난해 5월 GM 군산공장의 폐쇄로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주력산업 발굴을 모색해왔다.

지난 4월 상생형 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축한 가운데 5월 에디스모터스 등 4개 기업이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제2차 제조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이후 차세대산업 전문업체인 (주)명신과 (주)MS오도텍이 GM 군산공장 인수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도시였던 군산이 전기차 클러스터로 전환, 혁신적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됐다.

지역사회와 노동계는 전기차 컨소시엄의 전략적 연대를 모색하며 적정 임금과 공동교섭 등을 논의하며 상생협약안을 이끌어 내 지난 달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회에서 최종 상생협약안을 의결했다.

상생협약안 주요 내용은 선진적 임금체계를 도입한 적정임금 기준 마련과 원·하청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임금 공동교섭으로 원청 하청간 임금격차를 줄이며 납품 단가가 인하될 경우 하청기업과 수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하청 갈등의 문제에 대

한 협의도 이뤄졌다.

특히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협약에 의해 지역 내 생산품을 일정비율의 무구매하고 지역인재 우선채용, 중소기업지원기금 조성 등 지역상생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도 기여하게 된다.

정부는 전북도 및 군산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주거, 보육 등 근로자 복지와 부지매입 자금, 해외 판로개척 지원 등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주)명신 군산공장파 새만금산업단에는 총 4,122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며 내년부터 전기차용, SUV, 전기버스, 초소형 전기차 생산을 시작해 오는 2022년까지 연간 약 17만대를 생산하게 된다. 이로 인한 고용효과는 2022년까지 직접고용 1,902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강인준 군산시장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은 대기업 의존적 산업 구조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구조로 체질 개선을 하며 각 주체가 상생형 일자리 모델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성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장점마을 친환경 마을 조성

그간 환경문제로 이슈가 되었던 장점마을이 익산시의 지원 아래 친환경 시범마을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21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현재 우리시는 환경 문제 도시에서 환경친화 도시로 거듭나고자 환경친화도시 선포를 위한 막바지 준비로 한창이다.”라고 설명하며 “그와 연계하여 폐기물매립으로 논란이 된 장점마을을 포함한 몇 개 마을을 친환경 시범마을로 조성하고 생기 넘치는 마을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라.”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정현을 시장은 “이번주 23일 보석대축제를 시작으로 25일 국화축제와 대한민국 홀로그램 엑스포 등이 연이여 개최되는 바, 행사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폐지열병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 시장은 “이제 국회 국정감사가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예산확보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다.”라고 강조하며, “그런 취지에서 내일 (22일) 국회 현장에서 간부회의를 갖고,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제주산 불법폐기물 8290톤 처리

자립도시 군산시가 소재 파악이 어려워 방치돼 있던 생활폐기물을 처리완료하며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군산자유무역지역 내 A사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압축폐기물 8,200여 톤을 제주시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업체에서 처리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압축폐기물은 제주시 생활폐기물로 평택시 소재 업체에 위탁됐으나 위탁받은 B업체는 이를 불법으로 수출하려다 수출길이 막히게 됐다.

이에 군산항에 아적돼 방치돼 있던 A사 물류창고로 이적해 장기간 방치됐던 폐기물이다.

이를 적발한 군산시는 이와 관련 발 빠르게 조사를 실시했지만 평택시 소재 B업체 대표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등 원인자 처벌이 쉽지 않았다.

이에 군산시는 제주시를 직접 방문 제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와 별개로 환경부 및 평택시 등을 수차례 방문해 처리 방안을 찾았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의료원, 최신 의료장비 구축 혈관센터 개소

전북도 군산의료원(원장 김영진)은 혈관센터(센터장 전승진) 최신 혈관 조영 촬영장비(ANGIO-Philips Allura Xper FD20/15) 가동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찬욱 전라북도 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군산시 의회 김경우의장, 조동용 전라북도 의원, 구창덕 군산소방서장, 전형태 군

산시 보건소장,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 의료과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군산의료원 혈관센터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2명,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간호사 3명, 의료기사 2명으로 2019년 6월부터 응급 심·뇌혈관계 질환자를 위한 관상동맥조영술과 중재적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드립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